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2016;22(4):81-94.
https://cshr.jams.or.kr/ ISSN 2466-0752 (Print) · ISSN 2466-1023 (Online)

외식관련 전공자의 노동시장 이행 영향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분석

장 상 준[1)] · 나 태 균[2)¶]
계명문화대학교 식품영양조리학부[1)] · 두원공과대학교 호텔조리과[2)¶]

The Relative Importance of Factors affecting School to Work Transition in Foodservice-related Majors

Sang-Jun Jang[1)] · Tae-Kyun Na[2)¶]
Dept. of Food, Nutrition and Cookery, Keimyung College University[1)]
Dept. of Hotel Culinary Arts, Doowon Technical University[2)¶]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factors that affect school to work transition that food service-related majors and workers recognize. To this end, this study composed such factors into a second hierarchy level of individual background, educational background, and preparation effort to enter labor market. The study made us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which calculates the importance of each factor through the relative evaluation of each factor in the hierarchy.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second hierarchy level, effort to enter the labor market exhibited the highest relative importance. In the case of four-year college students, educational background had the highest relative importance. Second, in case of third hierarchy level factors relating to personal background, gender had the highest relative importance. As for educational background, the type of college had the highest relative importance. As to the effort to enter labor market, overseas working experience while in college and job searching channels had high relative importance, while vocational training experience had the lowest relative importance. Third, the analysis result of complex weighted value showed that the type of college had the highest complex weighted value. In future studies, the type of businesses and business conditions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should be subdivided for an analysis of influential factors, and, based on this, customized career guidance should be made for specific career paths of each student.

Key words: school to work transition, relative importance, foodservice, AHP

Ⅰ. 서 론

대학생 시기에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하는 일은 발달적 관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최근 고등교육의 팽창과 함께 대졸자의 실업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 문제는 청년실업 등 구조적인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Lee JE 2012). 이러한 청년실업의 주원인은 학력과잉, 안정적 직장 선호 등 청년 구직자의 눈높이와 현실간의 괴리에서 기인한다는 주장과 산업구조의 변화, 경력직 선호 등 기업의 노동수요 변화에 기인한다(김용성 2010).

이러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난은 다른

¶ : 나태균, food@doowon.ac.kr,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주라위길 159, 두원공과대학교 호텔조리과

전공뿐만 아니라, 외식관련 전공 분야 또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외식관련 전공은 양적으로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최근 대중매체에 요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담아낸 “쿡방”이 등장하고, 일명 셰프테이너(Cheftainer)로 불리는 조리사가 방송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직업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외식관련 전공에 대한 기대수준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일부 대학의 외식관련 학과의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취업분야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외식관련 전공자의 진로방향으로 국내외 호텔 및 외식업체, 제과제빵관련 업체, 단체급식, 식품연구소, 외식컨설팅업체, 학원, 편입 또는 대학원 진학 및 유학, 교사, 공무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조리실습 위주의 전공 교육과정, 전공자의 짧은 현장실무능력, 조리 관련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의 채용 빈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식품연구소, 외식컨설팅업체, 대학원 진학 및 유학, 교사, 공무원 등의 취업분야는 그 취업성과가 미비하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외환위기 이후 호텔경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비용 절감, 경영합리화 및 효율성 재고 등의 압력이 가중되면서(Kim HJ 2013) 비정규직의 선호, 노동환경에서 임금과 고용불안 유발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Park K Y · Jun JH 2007). 즉, 외식관련 전공 졸업생들의 양적 증가와 전공자의 다양화된 욕구에 비해 취업 대상 분야는 한정되어 있고,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최근 학교에서의 직업세계로의 이행(School-to-work)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근본적으로 대학과 산업계에 공동의 책임이 있다(Jung HS 등 2004). 따라서 외식관련 전공 대학생의 진로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고등교육기관의 외식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진로관련 연구는 진로태도 유형화에 관한 연구(Kim JH 2005), 외식 전공자를 대상으로 진로 관련 변인 간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연구(Han YJ · Lee JH 2013; Na TK · Moon SW 2012; Lee HR · Park SG 2010), 취업희망분야와 영향 요인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Lee KE · Kim TH 2005), 산학실습과 진로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Ahn SK 2009; Chong YK 등 2006), 조리사자격증과 경력개발 및 진로결정 수준 등과의 영향 관계를 분석한 연구(Im HW · Oh ST 2014; Park JJ · Moon GP 2011) 등과 같이 최근 다방면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외식관련 전공자를 대상으로 한 진로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들은 인지나 태도에 집중한 반면, 진로를 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 행위 등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고 있으며, 외식관련 전공자의 취업준비를 통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및 성과 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어서 다양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절실하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외식관련 전공자의 진로결정 및 준비과정에서 그 결정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행하는 여러 가지 노력 행위를 확인하고, 둘째, 노동시장 이행 시 이러한 노력 행위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전공자와 업계 종사자의 인식 차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는 대학 및 전공 교수의 진로지도 및 외식관련 전공자의 진로준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전공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돕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노동시장 이행

청년층이 대학을 마치고 첫 직업을 얻는 과정은 한 개인의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School-to-work transition) 개념이 주목 받게 되었다(Chang SS 1999). 이러한 노동시장 이행에 대해 학자마다 개

념 정의의 수준 및 범위가 상이하나,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은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및 결과라고 정의할 수 있다(Cho MS 2009).

이러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노동시장 자체를 바라보는 기본적 시각에 따라 크게 노동시장 이행을 개인의 합리적 행위의 결과로서 이해하는 개인주의적 관점과 노동시장 이행을 결국 제도적으로 재생산되는 사회적 기제에 의해 이해하려는 구조주의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논의되고 있다(Choi JH 2007). 개인주의적 관점은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의해 대졸자의 노동시장 이행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인적자본이론을 토대로 접근하였으며, 구조적인 관점은 노동시장의 구조에 의한 설명으로 크게 통계적 차별이론, 이중노동시장이론, 분단노동시장이론, 지역 간 불균형이론 등을 토대로 접근하고 있다(Cho MS 2009; Choi JH 2007; Cho SH 2005). 또한, 이러한 개인주의적, 구조주의적 관점과 더불어 최근 대졸자의 직장 선택은 대학 내 구성원들 간의 정보나 지식, 대학 내·외 타인과의 관계 등과 같은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을 통해 주로 이루어진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Kim YY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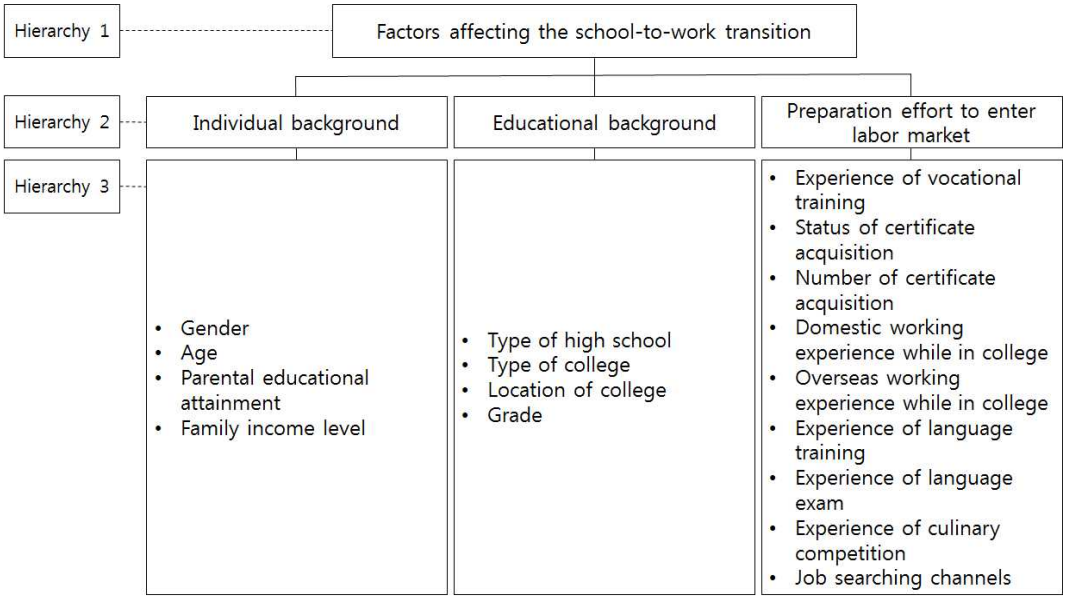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 관련하여 개인주의적 관점, 구조주의적 관점, 사회적 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영향 요인을 설명하고자 한다.

2. 노동시장 이행의 영향 요인

노동시장 이행의 영향 요인들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Ryu JS(2003)는 지방대 졸업자의 첫 일자리 임금수준에 미치는 영향 변수로서 성별, 결혼 여부, 학력, 전공분야, 정규직 여부, 사업체 규모, 근속월수, 첫 일자리 이행 기간, 대학 위치 등의 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Park SJ(2004)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성, 연령, 가족배경)과 교육체계(인문계열, 직업계열), 취업 준비활동(직업훈련, 자격증)요인을 투입하여 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성과를 분석하였다. Cho MR(2005)는 개인변수(성별, 연령, 전공, 재학 중 근로경험, 자격증 보유 여부, 부모의 학력수준), 지역 노동시장 특성(지역 실업률, 지역 내 총생산), 출신대학 특성(출신대학 소재지, 대학서열화 요인) 요인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Cho SH(2005)는 개인적 배경 특성(성별, 부 학력, 부 직업, 학년, 전공계열, 대학 소재지)에 따라 적극적 노동시장 준비행동(재학 중 일 경험, 자격증 유무, 진로지도 관련 교과목 수강, 취업박람회 참가, 교내 취업정보관련 부서 이용 횟수)과 소극적 노동시장 준비행동(비정규 교육활동 참여, 해외연수 참가,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Lee KE(2006)은 개인변수(성, 학력, 나이)와 취업노력변수(직업훈련 경험, 진로상담 경험, 인턴십 경험, 자격증소지 유무), 취업정보 획득경로를 투입하여 대학 졸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를 분석하였다. Lim JY (2008)은 개인적 차원의 이행준비(졸업 전 취업목표설정 여부, 취업목표 설정시기, 학점관리, 재학 중 일자리 경험 유무, 어학연수 경험, 구직활동 유무, 직업훈련 유무, 자격증 취득 유무)와 학교 차원에서의 취업지원 만족도 등의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Jang KY(2008)은 사회경제적 배경(부모학력, 부모직업, 가구소득, 고교지역), 교육특성(고교유형, 대학지역, 대학유형, 대학계열), 노동시장 이행 준비 요인(대학성적, 어학연수 경험 유무, 대학 재학 중 일자리 경험 유무, 직업훈련 경험 유무, 자격증 수, 구직경로)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Cho MS(2009)는 취업영향 요인으로서 출신대학지역, 전공계열, 대학생활(졸업학점, 어학연수경험, 재학 중 일자리 경험, 직업훈련 유무, 자격증 유무, 복수전공), 대학서열, 개인속성(성별, 연령, 혼인 여부, 가구주 여부, 아버님 최종학력, 어머님 최종학력, 가구소득) 요인으로 구분하여 변수들을 투입하였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외식관련 전공자의 노동시



<Fig. 1> Structure of the decision-making hierarchy for this study.

장 이행의 영향 변수로서 개인배경 변수, 학력변수, 노동시장 이행 준비 변수 등 크게 세 가지 변수 군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노동시장 이행 영향 요인의 계층구조 설정 및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층에 있는 요소들에 대한 상대 평가를 통해 각 요소들이 가지는 중요도를 산출해 내는 기법인 계층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사용하였다.

AHP 분석을 위한 첫 단계는 목표 달성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항목을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계층을 정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앞서 2장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Fig. 1>에서와 같이 외식관련 전공자의 노동시장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개인배경, 학력, 노동시장 이행 준비노력 요인 등을 계층 2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계층 2의 요인에 대한 계층 3의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배경 요인으로는 노동시장 이행의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사용되어온 성별, 연령, 부모학력, 가구소득 수준을 사용하였다. 둘째, 학력 요인으로는 출신고교 유형, 출신대학 유형, 출신대학 위치, 학점을 변수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이행 준비노력 요인으로는 직업훈련 경험, 자격증 취득 여부, 자격증 소지 수, 재학 중 국내 근로경험, 재학 중 국외 근로경험, 어학연수 경험, 어학시험 경험, 공모전입상 경험, 구직경로 등을 변수로 구성하였다.

의사결정 계층의 구조화 다음 단계는 의사결정 요소 상호간의 쌍대비교와 이를 바탕으로 한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조근태 등 2003). 의사결정 요소 간의 쌍대비교는 설문조사 등의 방식으로 수치척도의 제시와 이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통하여 수행된다. 이때 수치척도는 9점 척도가 가장 많이 이용되며, Saaty TL (1982)는 실험을 통하여 9점 척도가 실제 값에 가장 근접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도 9점 척도를 활용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2. 조사대상 및 시기

조사대상자는 크게 두 집단으로 나누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첫 번째 설문조사는 전국의 외식관련 학과 중 8곳의 2년제 전문대학(수도권 2개교, 대구/경북지역 2개교, 대전/충북지역 2개교, 광주/전남지역 2개교)과 7곳의 4년제 대학교(수도권 1개교, 대구/경북지역 2개교, 대전/충북지역 2개교, 광주/전남지역 2개교)의 외식관련 전공자중 비교적 노동시장 이행에 대한 관심 정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졸업예정 전공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은 객관성과 정확도 향상을 위해서 정규 수업시간에 각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간략한 설명을 한 후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기간은 2012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약 15일 간 진행하였으며, 총 15곳의 대학에 각각 20부씩 총 300부를 배포하였고, 이중 291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291부의 설문지 중 무응답 항목이 많거나, 일률적인 답변을 한 8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283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두 번째 설문조사는 호텔 및 외식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2013년 1월 6일부터 20일까지 총 15일 간 진행하였으며, 호텔업계 종사자의 경우, 서울 시내에 위치한 특 1급 호텔의 조리부에서 최소 5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5곳의 호텔에 각각 20부씩 총 100부를 배포하여 92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92부 중 무응답이 많거나, 일률적인 답변을 한 17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75부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외식업계 종사자의 경우, 구인구직을 위한 대표적인 인터넷 사이트인 잡코리아와 사람인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등록한 외식업계 인사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자우편 설문조사(e-mail survey)를 실시하였다. 총 135명의 인사담당자에게 전자우편을 발송하였으며, 이중 52명이 회신을 하였으며, 무응답 및 일률적인 답변을 한 3부를 제외한 49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 분석방법

AHP 분석을 위해 회수된 설문지의 신뢰성 분석은 대상자 개개인의 판단의 오차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인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CR)을 계산함으로써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CR은 그 값이 작을수록 판단의 일관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며, CR이 10%(0.1)보다 작을 경우, 응답자가 상당히 일관성 있게 이원비교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한다(Saaty TL 1982).

또한 AHP 분석에서 설문지에 대한 그룹의 평가치를 종합하는 방법은 그룹평가방법과 수치통합방법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조근태 등 2003). 본 연구에서는 그룹 멤버가 행한 각각의 쌍대비교행렬을 수집하고, 그룹 전체의 평가치를 수치통합하여 가중치를 구하는 수치통합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그 중 전체 평가자의 평가치를 기하 평균하여 통합하고, 이를 원소로 하는 단일 쌍대비교행렬을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기하평균을 사용하는 이유는 행렬의 역수성을 유지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기하평균법이기 때문이다(Lim CK · Lee JS 2007).

분석도구로는 설문대상의 인구통계학적 분석을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였으며, AHP 분석을 위하여 Expert Choice사의 AHP 전용 소프트웨어 패키지로 개발된 Expert Choice 10과 Excel을 이용하였다.

Ⅳ. 분석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외식관련 전공자의 노동시장 이행 영향 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 및 〈Table 2〉와 같다.

외식관련 전공자의 경우, 총 28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2년제 대학의 외식관련 전공자는 147명, 4년제 대학의 외식관련 전공자는 136명으로 나타났으며, 남학생이 157명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majors**

Characteristics		Type of college		Total
		2 year	4 year	
Gender	Male	82(55.8)	75(55.2)	157(55.5)
	Female	65(44.2)	61(44.8)	126(44.5)
Location of college	Seoul/Gyeonggi province	39(26.5)	21(15.4)	60(21.2)
	Local metropolitan city	35(23.8)	37(27.2)	72(25.4)
	Local city	38(25.9)	39(28.7)	77(27.2)
	Local county	35(23.8)	39(28.7)	74(26.2)
Total		147(100)	136(100)	283(100)

<Table 2>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industry workers**

Characteristics		Industry on duty		Total
		Foodservice	Hotel	
Gender	Male	18(36.7)	61(81.3)	79(63.7)
	Female	31(63.3)	14(18.7)	45(36.3)
Age (yrs)	≤29	6(12.2)	22(29.3)	28(22.6)
	30～39	27(55.1)	41(54.7)	68(54.8)
	40≤	16(32.7)	12(16.0)	28(22.6)
Education level	≤High school	3(6.1)	4(5.3)	7(5.7)
	College degree	12(24.5)	38(50.7)	50(40.3)
	University degree	26(53.1)	21(28.0)	47(37.9)
	Graduate school≤	8(16.3)	12(16.0)	20(16.1)
Career in the field(yrs)	≤3	12(24.6)	0(0.0)	12(9.7)
	4～5	17(34.7)	0(0.0)	17(13.7)
	6～10	14(16.4)	44(58.7)	58(46.8)
	11≤	6(12.3)	31(41.3)	37(29.8)
Position	Clerk	4(8.1)	19(25.3)	23(18.6)
	Senior clerk	14(28.6)	18(24.1)	32(25.8)
	Assistant manager	19(38.8)	34(45.3)	53(42.7)
	Manager≤	12(24.5)	4(5.3)	16(12.9)
Total		49(100)	75(100)	124(100)

(55.5%), 여학생이 126명(44.5%)으로 나타났다. 대학 소재지의 경우, 서울 및 경기지역에 소재한 대학의 재학생이 60명(21.2%), 지방의 시에 소재한 대학의 재학생이 77명(27.2%), 지방의 군에 소

재한 대학의 재학생이 74명(26.2%), 지방의 광역시에 위치한 대학의 재학생이 72명(25.4%)으로 나타났다.

호텔 및 외식관련 업체 종사자의 경우, 총 124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호텔업계가 75명, 외식업계가 49명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79명(63.7%), 여성이 45명(36.3%)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 30~39세 이하가 68명(54.8%), 29세 이하와 40세 이상이 각각 28명(22.6%)으로 나타났으며, 최종학력의 경우 2년제 전문대학 졸업이 50명(40.3%), 4년제 대학교 졸업이 47명(37.9%), 석사 재학 이상이 20명(16.1%), 고등학교 졸업 미만이 7명(5.7%)으로 나타났다. 현장 근무경력은 6~10년 이하가 58명(46.8%), 11년 이상이 37명(29.8%), 4~5년 이하가 17명(13.7%), 3년 이하가 12명(9.7%)으로 나타났다. 직책의 경우, 대리급이 53명(42.7%), 주임급이 32명(25.8%), 일반사원이 23명(18.6%), 과장급 이상이 16명(12.9%)으로 나타났다.

2. AHP 분석결과

1) 계층 2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외식관련 전공자의 노동시장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계층 2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의 측정결과는 <Table 3>과 같다.

외식관련 전공자의 경우, 노동시장 이행 준비노력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0.525)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학력 요인(0.362), 개인배경 요인(0.11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CR=0.02). 반면에, 4년제 대학 전공자의 경우, 학력 요인(0.512)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노동시장 이행 준비노력 요인(0.387), 개인배경 요인(0.10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CR=0.000).

또한 외식관련 업계종사자의 경우, 노동시장 이행 준비노력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0.566)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학력 요인(0.328), 개인배경 요인(0.10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CR=0.01). 외식업계와 호텔업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또한, 상대적 중요도의 순위는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계층 3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계층 3의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개인배경 요인에 대한 외식관련 전공자의 상대적 중요도는 성별(0.39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연령(0.317), 가정소득 수준(0.145), 부모학력(0.14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CR=0.001).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 전공자가 2년제 대학 전공자에 비해 부모학력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의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소득 수준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의 우선순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종사자는 외식업계와 호텔업계 종사자 모두 성별(0.455)이

<Table 3> The results of relative importance analysis of hierarchy 2

Classification	Type of school			Industry on duty		
	2-year (CR=0.02)	4-year (CR=0.00)	Total (CR=0.02)	Foodservice (CR=0.01)	Hotel (CR=0.09)	Total (CR=0.01)
Individual background	0.128[1)](3)[2)]	0.101(3)	0.114(3)	0.222(3)	0.064(3)	0.106(3)
Educational background	0.263(2)	0.512(1)	0.362(2)	0.369(2)	0.237(2)	0.328(2)
Preparation effort to enter labor market	0.608(1)	0.387(2)	0.525(1)	0.409(1)	0.699(1)	0.566(1)

1) Priority value, 2) rank.

<Table 4> **The results of relative importance analysis of hierarchy 3**

Classification		Type of school		Total	Industry on duty		Total
		2-year	4-year		Foodservice	Hotel	
Individual background	Gender	0.431[1)](1)[2)]	0.357(1)	0.398(1)	0.365(1)	0.516(1)	0.455(1)
	Age	0.295(2)	0.337(2)	0.317(2)	0.315(2)	0.251(2)	0.278(2)
	Parental educational attainment	0.116(4)	0.166(3)	0.141(4)	0.118(4)	0.097(4)	0.107(4)
	Family income level	0.158(3)	0.140(4)	0.145(3)	0.202(3)	0.136(3)	0.161(3)
	CR	0.01	0.04	0.01	0.02	0.07	0.04
Educational background	Type of high school	0.078(4)	0.088(4)	0.082(4)	0.132(4)	0.089(4)	0.106(4)
	Type of college	0.469(1)	0.439(1)	0.460(1)	0.474(1)	0.465(1)	0.485(1)
	Location of college	0.258(2)	0.210(3)	0.229(2)	0.154(3)	0.276(2)	0.205(2)
	Grade	0.195(3)	0.263(2)	0.228(3)	0.239(2)	0.170(3)	0.204(3)
	CR	0.02	0.06	0.03	0.05	0.05	0.05
Preparation effort to enter labor market	Vocational training experience	0.044(9)	0.035(9)	0.038(9)	0.039(9)	0.051(7)	0.041(9)
	Status of certificates acquired	0.069(8)	0.046(8)	0.053(8)	0.061(8)	0.046(8)	0.051(7)
	Number of certificates acquired	0.105(5)	0.071(6)	0.084(7)	0.076(6)	0.075(6)	0.076(6)
	Domestic working experience	0.121(4)	0.089(5)	0.103(6)	0.097(5)	0.103(5)	0.099(5)
	Overseas working experience	0.169(1)	0.224(1)	0.168(1)	0.203(1)	0.258(1)	0.234(1)
	Language training experience	0.092(6)	0.168(3)	0.140(3)	0.156(3)	0.111(4)	0.135(4)
	Language exam experience	0.075(7)	0.174(2)	0.138(4)	0.118(4)	0.157(3)	0.144(3)
	Culinary competition experience	0.154(3)	0.061(7)	0.118(5)	0.067(7)	0.031(9)	0.042(8)
	Job searching channels	0.168(2)	0.133(4)	0.157(2)	0.184(2)	0.168(2)	0.177(2)
	CR	0.05	0.05	0.05	0.06	0.07	0.05

1) Priority value, 2) Rank.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연령(0.278), 가정소득 수준(0.161), 부모학력(0.107)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CR=0.04).

학력 요인에 대한 외식관련 전공자의 상대적 중요도는 대학유형(0.46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학위치(0.229), 학점(0.228), 고교유형(0.08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CR=0.03).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전공자가 2년제 대학의 전공자에 비해 학점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의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위치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의 우선순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종사자의 상대적 중요도는 대학유형(0.48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학위치(0.205), 학점(0.204), 고교유형(0.106)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CR=0.05). 업계유형별로 살펴보면 호텔업계에 근무 중인 종사자가 외식업계에 근무 중인 종사자에 비해 대학위치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의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점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의 우선순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 이행 준비노력 요인에 대한 외식관련 전공자의 상대적 중요도는 재학 중 국외 근로경

험(0.16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구직경로(0.157), 어학연수 경험(0.140), 어학시험 경험(0.138), 공모전 입상 경험(0.118), 재학 중 국내 근로경험(0.103), 자격증 취득 수(0.084), 자격증 취득 여부(0.053), 직업훈련 경험(0.038)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CR=0.05).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2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전공자의 경우, 구직경로(0.168), 공모전 입상 경험(0.154)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의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학시험 경험(0.174), 어학연수 경험(0.168)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의 우선순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종사자의 상대적 중요도는 재학 중 국외 근로경험(0.234)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구직경로(0.177), 어학시험 경험(0.144), 어학연수 경험(0.135), 재학 중 국내 근로경험(0.099), 자격증 취득 수(0.076), 자격증 취득 여부(0.051), 공모전 입상 경험(0.042), 직업훈련 경험(0.04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CR=0.05). 업계유형별로 살펴보면 호텔업계 종사자가 외식업계 종사자에 비해 직업훈련 경험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의 우선순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모전 입상 경험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의 우선순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복합가중치에 의한 전체 평가요소의 비교분석

외식관련 전공자의 노동시장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복합가중치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외식관련 전공자의 경우, 대학유형의 복합가중

<Table 5> The analysis result of complex weighted value

Classification		Type of school		Total	Industry on duty		Total
		2 year	4 year		Foodservice	Hotel	
Individual background	Gender	0.055[1](9)[2]	0.036(9)	0.045(8)	0.081(4)	0.033(11)	0.048(9)
	Age	0.038(13)	0.034(11)	0.036(11)	0.070(6)	0.016(15)	0.030(12)
	Parental educational attainment	0.015(17)	0.017(15)	0.016(16)	0.026(15)	0.006(17)	0.011(17)
	Family income level	0.020(16)	0.014(16)	0.017(15)	0.045(11)	0.009(16)	0.017(16)
Educational background	Type of high school	0.021(15)	0.045(8)	0.030(13)	0.049(9)	0.021(14)	0.035(11)
	Type of college	0.123(1)	0.225(1)	0.167(1)	0.1750(1)	0.110(3)	0.159(1)
	Location of college	0.068(6)	0.108(3)	0.083(2)	0.057(8)	0.065(7)	0.067(6)
	Grade	0.051(10)	0.135(2)	0.083(3)	0.088(2)	0.040(9)	0.067(7)
Preparation effort to enter labor market	Ocational training experience	0.027(14)	0.014(17)	0.014(17)	0.016(17)	0.036(10)	0.023(15)
	Status of certificates acquired	0.042(12)	0.018(14)	0.019(14)	0.025(16)	0.032(12)	0.029(13)
	Number of certificates acquired	0.064(7)	0.028(12)	0.030(12)	0.031(13)	0.052(8)	0.043(10)
	Domestic working experience	0.074(5)	0.034(10)	0.037(10)	0.040(12)	0.072(6)	0.056(8)
	Overseas working experience	0.103(2)	0.087(4)	0.061(4)	0.083(3)	0.180(1)	0.132(2)
	Language training experience	0.056(8)	0.065(6)	0.051(6)	0.064(7)	0.078(5)	0.076(5)
	Language exam experience	0.046(11)	0.067(5)	0.050(7)	0.048(10)	0.110(4)	0.082(4)
	Culinary competition experience	0.094(4)	0.024(13)	0.043(9)	0.027(14)	0.022(13)	0.024(14)
	Job searching channels	0.102(3)	0.052(7)	0.057(5)	0.075(5)	0.117(2)	0.1002(3)

1) Priority value 2) Rank.

치(0.16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대학위치(0.083), 학점(0.083), 재학 중 국외 근로경험(0.061)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직업훈련 경험(0.014), 부모학력(0.016), 가정소득 수준(0.017) 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대학 유형별로 살펴보면, 2년제 대학 전공자의 경우 대학유형의 복합가중치(0.12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재학 중 국외 근로경험(0.103), 구직경로(0.102), 공모전 입상 경험(0.094)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학력(0.015), 가정소득 수준(0.020), 고교유형(0.021) 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4년제 대학 전공자의 경우 대학유형(0.225)의 복합 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점(0.135), 대학위치(0.108), 재학 중 국외 근로경험(0.087)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직업훈련 경험(0.0135), 가정소득 수준(0.0141), 부모학력(0.0168) 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호텔 및 외식업계 종사자의 경우, 전체적으로 대학유형의 복합가중치(0.159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재학 중 국외 근로경험(0.1324), 구직경로(0.1002), 어학시험 경험(0.0815), 어학연수 경험(0.0764)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학력(0.0113), 가정소득 수준(0.0171), 직업훈련 경험(0.0232), 공모전 입상 경험(0.0238) 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업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외식업계 종사자의 경우, 대학유형(0.1749)의 복합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점(0.0882), 재학 중 국외 근로경험(0.0830), 성별(0.0810)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직업훈련 경험(0.0160), 자격증 취득여부(0.0249), 부모학력(0.0262) 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호텔업계 종사자의 경우, 재학 중 국외 근로경험(0.1803)의 복합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구직경로(0.1174), 대학유형(0.1102), 어학시험 경험(0.1097), 어학연수 경험(0.0776)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학력(0.0062), 가정소득 수준(0.0087), 연령(0.0161) 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계층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외식관련 전공자와 업계 종사자가 인식하고 있는 노동시장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평가 영역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층 2의 경우 전체적으로 노동시장 이행 준비노력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4년제 대학의 외식관련 전공자의 경우 학력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계층 3 중 개인배경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해 외식관련 전공자와 업계 종사자 모두 성별의 상대적 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부모학력의 상대적 가중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패밀리레스토랑 남성 조리종사원에 비해 여성 조리종사원의 이직 성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고 주장한 Yoo YJ · Yun JY(2001)의 연구에서와 같이 외식관련 분야의 고용에서도 특정 부문의 여성 진출이 어렵고, 조직위계에서 남성 우위의 수직적 성별분절이 유지된다고 인식하고 있어 성별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외식관련 노동시장에서의 성별분절은 외식관련 여성 전공자의 비정규직 취업과 고용불안 등을 유발한다고 해석된다. 또한, 학력 요인의 경우, 외식관련 전공자와 업계 종사자 모두 대학유형의 상대적 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문대학보다는 4년제 대학의 노동시장 이행 성과가 높고, 지방대학보다는 서울권 대학이 노동시장 이행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Jang KY(2008)의 연구결과와 같이 외식관련 전공에서도 대학졸업장의 '우편번호'효과가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노동시장 이행 준비노력 요인의 경우, 외식관련 전공자와 업계 종사자 모두 재학 중 국외 근로경

험과 구직경로의 상대적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2년제 대학의 외식관련 전공자의 경우, 공모전 입상 경험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에, 4년제 대학의 전공자의 경우 어학시험 경험, 어학연수 경험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외식업계의 종사자의 경우, 직업훈련 경험과 자격증 취득 여부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반면에, 호텔업계 종사자의 경우 공모전 입상 경험과 자격증 취득 여부의 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즉, 대학생으로 하여금 외국기업 등에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전공 관련 업무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며, 종국적으로는 국내외 취업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을 강조한 Lee HW (2011)의 연구결과와 같이 외식관련 전공자의 국외 근로경험은 노동시장 이행을 위해 중요한 영향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학교를 매개로 형성된 교수와의 관계나 학교의 공식적인 취업 지원이 전공자의 노동시장 이행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 Won JY(2011)의 연구결과와 같이, 대학 또는 교수의 비공식적 또는 공식적 채널을 통해 확보하고 있는 구직경로의 수준이 외식관련 전공자들의 노동시장 이행에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외식관련 전공자들의 노동시장 이행을 돕기 위해서 대학 또는 교수는 취업과 관련된 구직경로의 수준을 높이고, 이를 전공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겠다.

셋째, 외식관련 전공자의 노동시장 이행 영향 요인들의 복합가중치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외식관련 전공자의 경우, 대학유형의 복합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위치와 학점, 어학시험 경험의 경우, 2년제 대학 전공자보다 4년제 대학 전공자가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년제 대학 전공자보다 2년제 대학 전공자가 공모전 입상 경험과 재학 중 국내 근로경험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관련 업계 종사자의 경우, 대학유형의 복합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재학 중 국외 근로경험, 구직경로, 어학시험 경험, 어학연수 경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호텔업계 종사자는 재학 중 국외 근로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식업계 종사자는 학점과 성별에 대해 호텔업계 종사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는 외식관련 전공자의 노동시장 이행 영향 요인들의 우선순위를 밝힘으로써 현재 노동시장의 진입을 준비하는 외식관련 전공자들의 진로준비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실증조사의 공간적 범위에 대한 한계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표본이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지만, 전체 외식관련 전공자에게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학계 차원에서 전국 외식관련 전공자를 대표할 수 있는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2013년도 2월 외식관련 전공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횡단적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졸업 후 직접적인 취업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졸업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고용형태, 전공일치, 임금수준 등의 취업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각각의 영향 요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외식관련 전공 졸업자 및 업계 종사자가 인식하는 노동시장 이행 영향 요인의 중요도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노동수요의 주체인 외식 및 호텔업계의 다양한 업무 분야마다의 중요도를 분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외식관련 산업체의 업종과 업태에 따른 선발하는 선호 인력들이 갖고 있는 요인 등에 대한 분석 및 더 나아가 다른 전공분야와의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글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외식관련 전공자의 노동시장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외식관련 전공자의 노동시장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서 개인배경, 학력, 노동시장 이행 준비노력 요인 등을 계층 2로 설정하였으며, 계층에 있는 요소들에 대한 상대 평가를 통해 각 요소들이 가지는 중요도를 산출해 내는 기법인 계층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층 2의 경우 노동시장 이행 준비노력의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4년제 대학의 외식관련 전공자의 경우, 학력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계층 3 중 개인배경요인의 경우 성별의 상대적 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력 요인의 경우, 대학유형의 상대적 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동시장 이행 준비노력 요인의 경우, 재학 중 국외 근로경험과 구직경로의 상대적 가중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훈련 경험의 상대적 가중치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셋째, 복합가중치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유형의 복합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외식관련 산업체의 업종과 업태를 보다 세분화하여 영향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전공자의 진로분야별 맞춤형 진로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노동시장 이행, 상대적 중요도, 외식, 계층분석기법

참고문헌

김용성 (2010). 청년실업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시리즈 2008-09), 10-11.

조근태, 조용곤, 강현수 (2003). 앞서가는 리더들의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동현출판사, 4-89, 서울.

Ahn SK (2009). An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perception and experience of internship training on job pursuit intentions: J university in Jeonbuk and C university in Chungnam. *The Korean J of Culinary Res* 15(2):31-44.

Chang SS (1999). Educational credentials and labor market entry in Korea: Transition form school to work. *Korean J of Sociology* 22(4):751-787.

Cho MR (2005). The Determinants of Labor Market Entry and Status for the Youth of University Graduate. Master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1-77, Chonbuk.

Cho MS (2009). An Empirical Study on the School to Work Transition of College Graduates: Determinants of Success Rate, Duration, and Wage Differential. Master Thesis, Inha University 1-104, Incheon.

Cho SH (2005).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Preparation Behaviors for the Labor Market. Master Thesis, Yonsei University 1-99, Seoul.

Choi JH (2007). Social Capital and Occupational Achievement of High School Graduate Youth in Korea. Doctoral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1-155, Chonbuk.

Chong YK, Hwang HJ, Huh KS (2006). The effects of internship program satisfaction on the career decisions of culinary major students. *Korean J Food Cookery Sci* 23(5):702-711.

Han YJ, Lee JH (2013). A study on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ccording to the values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food management and culinary arts. *The Korean J of Culinary Res* 19(2):76-92.

Im HW, Oh ST (2014). A study on gender and certification with career development compe-

ten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university culinary art students. *J of Foodservice Management* 17(3):199-216.

Jang KY (2008). Determinants of the First Job Attainment for College Graduates in Korea: Effects of Socio-economic Status, Educational Characteristics and Individual Preparedness. Doctoral Thesis, Hanyang University 1-168, Seoul.

Jung HS, Seo KH, Yoon HH (2004). Present situation of internship program for the under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culinary studies. *J of Foodservice Management* 7(3):65-86.

Kim HJ (2013). A study on the effects of downsizing kitchen employees in hotels on job attitude: Focusing on the individual behavior types(DISC) of kitchen employees in the hotels in the Seoul and Daejeon regions. *The Korean J of Culinary Res* 19(3):1-17.

Kim JH (2005). A comparative study of the career choices of culinary department students at the junior college level. *J of Foodservice Management* 8(3):165-183.

Kim YY (2016). The Influence of University Students' Social Networking up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and Mediating Effect of Communication Competence. Master Thesis Chungang University 1-101, Seoul.

Lee HR, Park SG (2010). The medi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barrier and career decision level among college students. *J of Foodservice Management* 13(1):79-105.

Lee HW (2011). Investigating factors of successful overseas internship program for nurturing global talent. *The Korean J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13(1):139-162.

Lee JE (2012). Factors Affecting Job Opportunities of University Graduates in Korea.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1-77, Seoul.

Lee KE (2006). A Study on Youth's Labor Market Participation. Master Thesis, Kyunghee University 1-81, Seoul.

Lee KE, Kim TH (2005). Investigation of factors influencing career decision-making of students in foodservice management and culinary arts programs.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10 (3):311-318.

Lim CK, Lee JS (2007). An analysis on the success factors of CRM by AHP: Focus on deluxe hotel in Busan. *J of the Korea Service Management Society* 8(1):137-159.

Lim JY(2008). School to Work Transition Analysis of Female Students in Science & Engineering Fields of Majors in 4-year University. Master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3, Seoul.

Na TK, Moon SW (2012).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of professors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foodservice and culinary art majors: Focus on the university in Chungcheong province. *The Korean J of Culinary Res* 18(2):106-117.

Park JJ, Moon GP (2011).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national technology certificate of cook on the self-efficacy and career development lifelong study performance: In the context of food industry. *Korean J of Tourism Res* 25 (5):409-433.

Park KY, Jun JH (2007). The effect of part-time hotel cuisiniers' labor environmen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n their job satisfaction. *The Korean J of Culinary Res* 13(2):69-80.

Park SJ (2005). School-to-work transition and labor market performances of local university

graduates: Focusing on their first job in life. *Quarterly J of Labor Policy* 5(4):65-99.

Ryu JS (2003). A study on the school-to-work transition of provincial college graduates. *Korean J of Labor Studies* 9(1):171-196.

Saaty TL (1982).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 new approach to deal with fuzziness in architecture. *Architect Sci Review* 25(3):64-69.

Yoo YJ, Yun JY (2001). Study on the turnover reason of family restaurant cook part employee. *Korean J Soc Food Sci* 17(1):13-22.

Won JY (2011). The effects of educational attainment and sources for career information on wages and job-education match in the first job among young people. *Korean J of Youth Studies* 18(12):1-27.

2016년 03월 18일 접수
2016년 05월 10일 1차 논문수정
2016년 06월 10일 논문게재확정